

## 화상회의 시스템 사업 본격화

### 가산전자

가산전자(대표 오봉환)가 화상회의시스템 시장에 참여한다.

가산전자는 지난 2월 미국 PCI사의 신호변환장치 칩인 CODEC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기 시작한 데 이어 최근 일본 도시바와 PC화상통신용 CCD(고체촬상소자) 카메라의 국내 독점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산전자는 자체개발한 화상캡처보드를 포함해 PC화상회의시스템에 필요한 토털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번에 가산을 통해 공급되는 도시바의 CCD카메라(모델명 1KM28)는 1만 4,400bps 이상의 모뎀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27만화소의 고화질 컬러 화면을 초당 11프레임이상 전송시킬 수 있는 PC용 초소형 CCD컬러 카메라로 화상 통신·화상편집·감시·원격회의·원격강의·원격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다.

## 소형 향온 향습기 출시

### 다원에이씨

다원에이씨(대표 오태수)가 가정 및 사무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소형 향온향습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공기 정화기능은 물론 냉방·보조난방·제습 및 가습 기능을 갖춘 다기능 공조기기로 일반가정·사무실·연구실 등에서 설치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다원에이씨는 공기 정화기능에 정전집진필터를 포함, 3단계 필터와 음이온 발생장치를 채용했고 냉방기에는 고성능 스크롤컴프레서를 채용했다.

## 1kW급 SMPS 개발

### 단암산업

단암산업(대표 최용철)이 통신장비용 1kW급 스위칭모드 파워서플라이(SMPS)를 개발, 본격 공급에 나선다.

지난해 초부터 1kW급 통신장비용 SMPS 개발에 나선 단암산업은 최근 AC/DC 컨버터를 개발한 데 이어 지난 2월부터 개발을 시작한 DC/DC 컨버터도 이달 말께 개발을 완료, 내달부터 전량 현대전자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암이 이번에 개발한 AC/DC 컨버터 및 DC/DC 컨버터는 현대전자가 개발중인 무선호출기 중계기에 채용될 예정인데, 특히 DC/DC 컨버터는 AC/DC 컨버터를 통해 직류형태로 변환된 전원의 전압을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해

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단암측은 국내에서 1kW급 대용량 DC/DC 컨버터가 개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무선호출기 중계기에 DC/DC 컨버터가 채용되는 것도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 광 미디어 연구소 설립

###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광픽업과 이를 사용하는 디지털 버서타일디스크(DVD) 등 디지털 영상·음향 제품을 연구하는 「광미디어연구소」를 설립, 운영에 들어갔다.

대우전자는 이번에 광미디어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광픽업은 물론 이미 상품화한 자동차용 CD, 비디오CD와 재생전용의 DVD플레이어, 재생과 녹화가 가능한 DVDR, DVD롬 등의 차세대 제품을 연구개발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 했다고 밝혔다.

광미디어연구소는 이에 따라 기존의 광기기 관련 조직을 확대개편해 △CD·CD롬·DVD 등 디지털 영상·음향기기와 광디스크용 픽업을 연구하는 광픽업 분야 △데크개발을 담당하는 메커니즘 분야 △광기기 제품을 개발하는 시스템 분야 등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연구인력은 기존 뉴미디어개발부 최계철 이사를 연구소장으로 박사급을 포함해 1백명의 고급연

구원으로 구성됐다.

대우전자는 핵심부품부터 완제품까지 일관 연구체제를 갖춘 광미디어연구소를 설립함으로써 오는 2000년까지 연간 3,600만개의 광픽업 생산능력을 갖추고 세계 수요의 12%를 점유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 미국에 첨단기술 연구소 설립

###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미국에 비메모리 반도체와 멀티미디어·정보통신 등 차세대 제품을 개발하는 첨단기술연구소(DERCA)를 설립,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우전자의 미국 첨단기술연구소는 앞으로 국내 중앙연구소 및 미스탠퍼드연구소(SRI)의 부설 연구 기관인 데이비드 사노프연구소(DSRC)와 공동으로 향후 5년간 3천만달러를 투자해 멀티미디어에 대응할 수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비롯 디지털TV·고선명(HD)TV 등 차세대 방송수신 시스템 분야와 멀티미디어 응용 SW 및 HW분야, 디지털VCR 등 영상관련 및 미래형 제품에 대한 기술개발과 기초기술 연구에 주력할 예정이다.

대우전자는 이 연구소 설립으로 현지 판매법인과 인근 멕시코 컬러TV·VTR 공장과 연계해 미주

지역내 연구개발 및 생산·판매의 일관체제를 구축하게 됐으며 멕시코 공장의 미래형 제품개발을 담당할 연구개발센터로도 육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박사급 고급인력을 포함해 60명의 현지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내년까지는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 「냉장고 후불제」 실시

###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가전업계 처음으로 시도한 「냉장고 후불제」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우전자가 냉장고 후불제를 실시한 4월 15일 이후 10일간의 판매동향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동안 2만 700대의 냉장고가 판매돼 실시전 열흘간의 1만 3,600대에 비해 52%가 증가했으며, 1만 2,100대가 판매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71%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기간동안 서울시내 백화점 M/S 30%를 차지,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에 비해 크게 향상되는 등 입체냉장고 탱크가 백화점의 주요 히트상품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반품율은 0.2% 미만으로 반품 이유는 색상이나 디자인 등 개인취향이 주된 요인이며 품질불량

은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대우전자는 냉장고 후불제가 일단 성공적인 판매방식으로 평가됨에 따라 실시기간의 연장 및 대상 품목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 구미공장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 구미공장에서는 사내 복리후생제도의 일환으로 4월 중순부터 사원뿐 아니라 사원가족들도 아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무료법률상담실」을 개설, 운영에 들어갔다.

대우전자 「무료법률상담실」은 법률상담을 전담할 고문 변호사를 선임해 사원과 사원가족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이나 교통사고에 의한 법률분쟁 등의 민사문제, ▲일반형사문제, ▲상속과 같은 가사문제 등에 관하여 법률적인 의견이 있을 경우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사원이나 가족들이 이 무료법률상담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편리한 시간에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거나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서 상담하거나, 구미상공회의소에 마련된 상담실을 이용, 정기적으로 고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할 수도 있다.

또한 대우전자 사원이나 가족들

이 민·형사상의 문제로 법률분쟁이 발생하여 고문 변호사를 소송 변호사로 선임할 경우에는 수임료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주도록 하고 있다.

대우전자는 갈수록 복잡해지는 생활 속에서 어려운 법률상의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에 대한 지식이나 절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사원들이 많은 현실을 감안해 이 무료 법률상담실을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 「콤팩트 사이즈 에어컨」 시판

### 대우전자

대우전자(대표 배순훈)는 새로운 냉각기를 채용하여 기존 에어컨보다 크기를 줄였음에도 냉방효율을 더욱 향상시킨 콤팩트 사이즈의 에어컨(모델명 : DAS-095N)을 개발 시판에 들어갔다.

이 제품은 기존 일직선 냉방팬의 냉방효율을 보완한 구부러진 형태의 고압력 언이븐 블레이드 팬(Uneven Blade Fan)을 장착하여 30cm 이던 에어컨 폭이 28cm로 줄어들고 동시에 냉각공기의 유로가 짧아져 냉방효율이 더욱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주위환경과도 어울리도록 인테리어 개념의 디자인을 채용한 콤팩트한 사이즈로 장식의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에어컨은 이와함께 ▲15분간 사용자에게 바람을 집중시켜 최단시간에 냉방을 하는 쾌속집중기능, ▲바람의 각도를 6단계까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풍향조절기능, ▲실내상태에 따라 에어컨 스스로가 운전모드를 선택, 조절함으로 전력낭비를 줄인 인공지능(AI) 자동운전기능 등으로 쾌적한 냉방을 즐길 수 있다.

또한, 국내에서 유일하게 정진후에도 정진진의 운전상태를 기억하여 사용자가 실내온도, 시간 등을 다시 작동시킬 필요가 없이 자동복귀가 되고, 특수설계된 세계 최고 효율의 로타리 컴프레서를 장착하여 운전중에도 33dB의 최저소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에너지효율 1등급을 획득하여 전기료에 대한 부담도 줄였다.

그 밖에도 반영구적인 집진 탈취필터와 첨단 항균 소재를 채용한 항균팬 등을 통한 공기정화기능, 실내온도에 따라 풍량이 자동으로 조절되는 자동풍량조절기능, 에어컨의 이상유무를 알려주는 자기진단 기능 등 첨단기능도 갖추었다.

## 팩시밀리 수출강화

### 대우통신

대우통신(대표 유기범)이 팩시밀리 분야에서 해외시장 공략을 강화하고 있다.

대우통신은 지난해부터 자사 제품이 일본 제품에 비해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는 등 해외시장 공략의 유리한 조건이 성숙됨에 따라 올해를 「팩시밀리 수출의 일대 도약기」로 삼고 독일·프랑스 등 유럽 지역을 집중 공략해 수출물량을 지난해보다 80% 이상 늘어난 45만대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우통신은 수출전략 품목을 용도·가격대별로 11개까지 다양화해 외국 소비자들의 까다로운 요구를 충족시키는 한편 중국의 저렴한 인건비를 적극 활용해 생산원가를 크게 낮춤으로써 제품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 대우통신은 향후 크게 늘어난 수출물량을 원활히 조달키 위해 지난해 10월 2개 라인으로 건설한 중국 텐진공장의 생산라인을 상반기 안에 4개로 확대하고 올해 안에 중국에만 연간 20만대 규모의 합작공장을 2개 더 세운다는 계획 아래 현재 중국의 합작 파트너 및 지역을 모색 중이다.

## 개인용 레이저프린터

### 시판

### 대우통신

대우통신(대표 유기범)은 지난 달 전문가용 레이저프린터(DLP-8010)를 출시한 데 이어 개인용 레이저프린터 「원프로 레이저」(모델

명 : DLP-5010)를 출시하고 프린터 사업 강화에 나섰다.

대우통신이 개인사용자들을 겨냥해 내놓은 「윈프로 레이저」는 컴팩트한 디자인에 국내 최소형을 실현, 책상위에 간편하게 올려놓고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레이저프린터 중 국내 최저가로서 개인용 레이저프린터라는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급 최고인 600DPI 해상도를 실현, 문서는 물론 그래픽 출력시에도 선명한 인쇄물을 얻을 수 있는 이 제품은 컴퓨터의 화면에 나타난 대로 출력해주는 위지위그(WYSIWYG : What You See Is What You Get)기능도 포함되어 있어 소프트웨어 조작이 서툰 초보자들도 실수없이 원하는 인쇄물을 단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

또한 이제품은 고속 병렬(Par-

allel) 인터페이스 기술을 적용해 인쇄속도를 향상시켰으며 본체의 CPU를 활용해 데이터를 전송하므로 고성능 PC에서 인쇄속도가 더욱 빨라진다.

특히 병렬인터페이스 부분을 양방향으로 처리해 프린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PC화면 상에서 프린터 장애나 인쇄상황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 케이블TV망을 이용한 고속 인터넷 시대 막 열어

### 삼보컴퓨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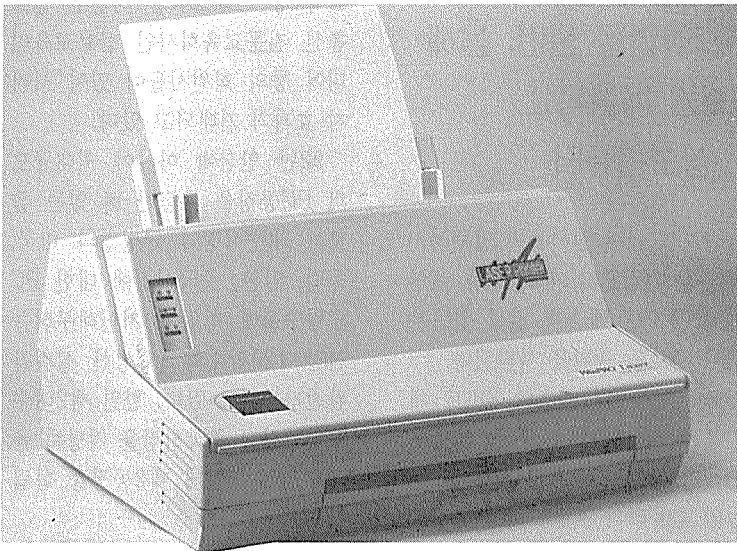
삼보컴퓨터(대표 이정식)와 한강케이블TV(대표 황영선), 인텔, 아이네트 기술과 함께 국내 최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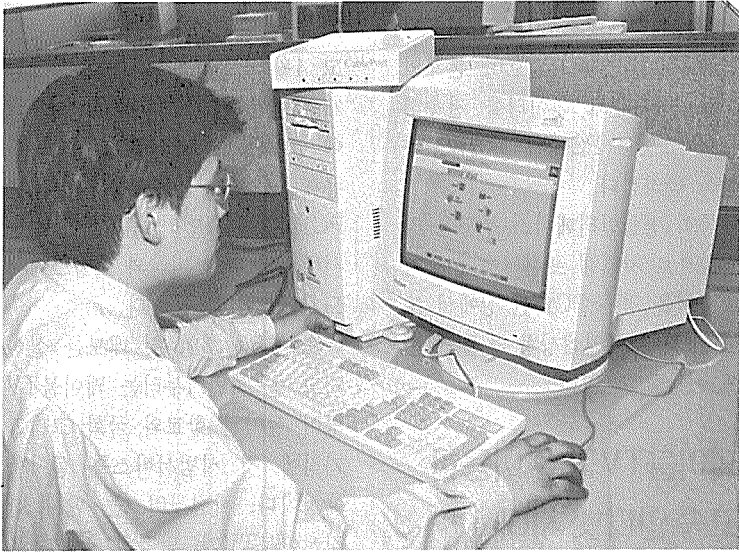
로 홈네트 시범서비스를 실시한다고 4월 발표했다. 홈네트 사업의 개요는 현재 각 가정이나 사무실에 설치되어진 케이블 TV망을 이용해 케이블 전용모뎀이 설치된 PC로 고속의 인터넷 전송을 하는 서비스로 현재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시범 서비스중이다.

오는 5월 3일 첫 데모를 실시하고 올 하반기부터는 케이블TV망이 설치된 학교와 국회 그리고 가정에 첫 시범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서비스는 현재 한강케이블TV가 담당하는 영등포구 여의도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향후에는 케이블망이 설치되는 전국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이번 홈네트 사업에는 4개 회사가 참여해 기술적인 역할을 분담했다. 삼보는 PC와 네트워크 부문의 기술, 인텔은 케이블TV모뎀 기술을, 한강케이블TV사는 케이블망 기술을 그리고 아이네트 기술이 인터넷 관련 솔루션을 제공한다.

10MB 용량의 케이블TV 모뎀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기존의 28,800bps 모뎀에 비해 300배 이상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때문에 큰 용량의 정보를 주고받는 인터넷 접속과 파일업다운로드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케이블TV 모뎀은 추후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더 빠른 속도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다. 사용되는 인텔의 케이블TV모뎀은 PC를 이용한 광역 커뮤니케이션과 쌍방향 통신





을 위한 포트 어댑터로 최근 상용화된 각종 모뎀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다.

케이블TV 영등포지역 사업자인 한강케이블TV는 데이터를 주고받는 헤드앤드(headend), 로컬 서버, 라우터를 가지고 아이네트 기술의 인터넷 서버와 접속하고 케이블TV 전송망에 케이블 TV 모뎀을 설치해 가입자와 접속한다.

케이블TV 모뎀으로 인터넷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지역 케이블TV 방송국부터 케이블망을 연결하고 이 선을 스플리터로 분리해 TV와 케이블TV 모뎀에 연결하면 케이블TV 방송수신과 케이블TV 모뎀을 이용한 PC 통신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삼보컴퓨터는 홈네트를 기반으로 한 종합 멀티미디어 PC

를 개발할 예정이며 현재 인터넷 접속기능까지 내장한 멀티 PC에서 한차원 높여 케이블TV, 인터넷, VOD서비스 등의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고속으로 구현하는 시스템을 홈네트와 연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2창업을 선언, 올해 1조원 매출목표 삼보컴퓨터

삼보는 금번 신사옥에 입주하는 96년을 기점으로 제2창업을 선언하고, 1조원 매출액 달성 원년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1980년 국내 최초의 8비트 개인용 컴퓨터인 SE8001을 조립생산하기 시작한 삼보가 지난 16년 동안 컴퓨터와 프린터라는 외길로

걸어 온 전문기업으로 올해 매출 1조원을 기록한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삼보컴퓨터는 PC수출 경기가 위축되었던 90년대 초반을 제외하고는 규모면에서 매년 30~40%씩 고성장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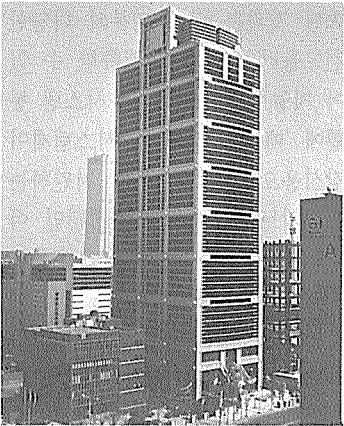
국내 컴퓨터산업 발전사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삼보컴퓨터는 정보통신전업그룹을 지향하며 투자를 늘려, 정보통신과 관련된 17개 회원사를 확보했다. 한편 한국개발투자 등의 금융사 등을 추가하며 벤처그룹의 재정적인 신용도와 안정도를 높였다.

현재는 나레이동통신과 같은 신규통신사업자와 아이네트, 사이버텍홀딩스 등 인터넷 전문회사, 솔빛조선미디어, 휴먼컴퓨터 등의 소프트웨어 메이커 및 삼보마이크로시스템, 삼보정보통신 등의 하드웨어 메이커 그리고 위성, 화상교육 등 미래교육을 지향한 정보통신 전문교육회사인 삼보교육미디어 등의 회원사들이 있어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92년 안산에 아시아 최대규모의 PC공장을 준공한 바 있는 삼보는 내수시장의 급성장과 미국, 유럽, 일본, 중국시장에 대한 PC 대량수출에 힘입어 지난해부터는 연간 120만대의 PC생산 설비를 완전가동하고 있다. 한편 제2내수 시장화하는 중국시장을 겨냥해 올해중으로 천진에 제2공장을 설립할 예정이다.

## 여의도 신사옥 이전

### 삼보컴퓨터



1993년 3월에 착공한 여의도 신사옥은 정림건축(주)이 설계, 감리하고 LG건설(주)이 시공하여 지난 3월 준공 완료되었다. 삼보의 신사옥은 개성과 독창성을 강조한 서구풍의 외관과 사무능률 극대화를 위한 신개념의 첨단 정보통신설비를 조화있게 접목했다.

삼보 신사옥의 가장 큰 특징은 첨단 정보시스템의 자체 설계와 시공으로 초고속 정보통신망인 ISDN, ATM방식을 구축했고, 텔레커뮤니케이션(TC)부문과 사무자동화(OA)부문을 효과적으로 통합 관리한다.

통신부문의 전자교환기는 캐나다 노던텔레콤사 제품으로 내선 2,000회선, 국선 600회선, 전용선 40회선, ARS 내선 72회선을 수

용하고 향후 ISDN의 지원이 가능하다.

음성정보검색(ARS) 시스템은 삼보정보통신의 것으로 사내 적용 용량의 최대 회선수는 216회선이며 사내 전화정보 60회선, 팩스전화정보 12회선이 있고 이를 통해 제품, A/S 정보, 신제품 동향 그리고 회사소개 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또 나래이동통신과 연동된 무선 호출기로는 내/외부인이 사내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담당자가 전화를 받을 수 없을 때 자동으로 호출하는 페이징 시스템을 갖추었다.

그외에도 개인당 10MB의 메모리의 보이스메일링, E-메일 인터랙션, 팩스온디맨드 등의 기능을 사용할 예정이다.

사원들은 근접식카드를 이용한 시큐리티 시스템을 이용한다. 이 카드는 사원 개인의 신분증으로도 사용 가능하고 지원되는 각종 소프트웨어를 통해 출입관리, 방문자관리 및 주차관리 시스템과도 연결한다.

#### (사옥 건축 개요)

건물명 : 삼보컴퓨터 지능형 빌딩  
 소재지 :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  
 대지면적 : 2,557㎡  
 용도 : 업무시설, 근린 생활시설  
 건축면적 : 1,022㎡  
 연면적 : 39,112㎡  
 규모 : 지상 25층, 지하 8층

## 특수기관 본격생산

### 삼성전기

삼성전기(대표 이형도)는 올해부터 IC카드용 칩 온 보드(COB), BGA(Ball Grid Array)용 기관, 경·연성 PCB 등 특수기관 생산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삼성전기는 기업설명회(IR)를 갖고,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칩 부품·이동통신용 부품·광 및 박막 부품 분야에 투자를 확대해 올해 1조9천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라운관용 고압트랜스(FBT)의 경우 21인치 이상 대형 모니터용에 주력, 2000년까지 적층형 FBT의 생산비율을 71%까지 끌어올리고 SMPS일체형 FBT·고출력 트랜스 등 복합제품 개발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 회사는 또 2000년까지 PCB 매출 4천억원을 달성, 세계 5대 메이커에 진입한다는 목표로 특수기관 개발을 확대하기로 하고 올해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IC카드용 COB를 비롯해 BGA, 경·연성 기관 등의 생산에 들어가는 한편 내년 중에는 마이크로 BGA·다층 COB·멀티칩 모듈(MCM) 등도 생산할 계획이다.

## 900MHz 무선전화기용

### 고주파 모듈 양산

## 삼성전기

삼성전기(대표 이형도)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900MHz 무선전화기용 고주파 모듈(RF유닛)을 개발, 이달부터 본격 양산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지난 94년부터 1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이 RF유닛은 무선전화기 안에서 신호를 발생시키고 신호의 통로역할을 하는 것으로, 무선전화기의 성능을 실질적으로 좌우하는 핵심부품이다.

삼성전기가 개발한 제품은 특히 그동안 송신부와 수신부로 분리돼 있던 고주파 회로부를 하나의 모듈로 만들어 26g의 세계 최경량은 물론 최소형의 사이즈를 실현한 점이 특징이다.

삼성전기는 이 제품을 이달말부터 월 20만개씩 본격 생산하는 한편 생산량을 매년 30% 이상 확대할 예정인데, 오는 98년까지 총 7백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16M 싱크로너스 D램

### 양산

####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기존 싱크로너스 D램(SD램)보다 칩 크기는 작으면서도 데이터 처리속도 등의 성능은 대폭 향상된 16M 싱크로너스 D램「슈퍼세트(Superset)」

2종을 양산·공급한다고 발표했다.

기존의 컨트롤러 방식의 SD램과 호환되는 슈퍼세트는 종전보다 칩 크기는 5%가 줄었고 테스트 시간은 3분의1 수준으로 감소된 데 반해 데이터 처리속도는 10~15% 개선시킨 제품이라고 삼성 측은 밝혔다.

삼성엔 이 제품을 서버·워크스테이션 등 고급제품의 주기억장치에 사용되는 100MHz급과 PC·세트톱박스(STB) 등에 채용되는 83MHz급 제품을 중심으로 올해 1,200만개를 생산하고 97년에는 전체 D램 생산량의 35% 이상으로, 그리고 98년에는 5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은 또 이 제품의 본격 양산으로 그간 SD램 시장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가격대비 성능비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SD램이 향후 고속 D램 시장의 주력제품으로 자리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D램에 비해 8%정도 높게 책정해왔던 SD램 가격을 올 3·4분기부터는 기존 방식의 D램과 비슷하게 낮춤으로써 SD램으로의 시장전환을 가속화시켜 나갈 방침이다.

## IBS 제어 소프트웨어

### 개발

#### 삼성전자

삼성전자(대표 김광호)는 최근

지능형빌딩 관리에 적합한시스템(IBS) 제어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가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기존 제품이 하드웨어에 종속된 것과는 달리 외부의 다양한 컨트롤러와도 쉽게 접속할 수 있어 지능형빌딩(IB) 등 시스템 통합에 매우 유리하며 시스템제어 감시용으로 TCP/IP를 지원하는 이더네트상의 LAN 환경뿐만 아니라 독립적인 환경에서도 운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윈도의 MDI 인터페이스를 채택, 최대 4개 화면으로 분할해 시스템을 감시할 수 있으며 각 화면은 윈도의 파일 관리자와 유사해 레벨 및 포인트 화면으로 분할운용돼 전 시스템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팝업(Pop Up) 및 풀다운(Full Down)메뉴 방식을 채택,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스케줄, 추이, 적산, 연동, 보고서 기능을 기본으로 지원하고 해당하는 명령에도 차별을 두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야만 구현이 가능했던 프로세스를 단순히 스케줄과 연동의 조합만으로 운용할 수 있다.

## CDMA용 선형증폭기

### 개발

#### 삼성전자

삼성전자는 3년간 20억원의 연구비를 투입,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방식 이동전화 기지국의 핵심부품인 선형전력증폭기(LPA)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선형전력증폭기는 CDMA 기지국에 장착돼 송신에 앞서 신호의 상호간섭·변조·왜곡을 없애고 전력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증폭시켜주는 핵심부품으로, 세계적으로도 AT & T·모토롤라 등 일부 전문업체만이 기술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이 개발한 선형전력증폭기「SCA-100」은 멀티주파수 할당 방식을 채택, 기지국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모듈타입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해 가입자 증설도 쉬운 점이 특징이다.

또한 혼변조 특성을 최소화해 전송품질을 높였고 시분할다중접속(TDMA) 및 아날로그방식의 장비에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 제품의 개발로 연간 3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25인치 TVCR 시판

### 아남전자

아남전자(대표 조석구)는 최근 하이파이 6헤드 VCR를 내장한

25인치 TVCR 「화왕」을 개발, 이달초부터 시판한다고 발표했다. VCR 테이프 삽입구를 TV의 아랫부분에 둔 이 제품은 하이파이 음성전용 2헤드를 채용해스테레오나 음성다중으로 녹음 및 재생할 수 있고 수신용 튜너와 녹화용 튜너를 별도로 갖춰 녹화중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다. 이 제품은 디지털서라운드기능이 있어 음악을 들을 때와 영화를 볼 때 각각 180도와 720도 서라운드 입체음향효과를 즐길 수 있다. 소비자가격은 109만 8,000원이다.

## 정보통신부문 투자

### 확대

### 유양정보통신

유양정보통신(대표 조소언)이 전자부품 전문업체에서 정보통신업체로의 변신을 적극 추진한다.

유양은 그동안 주력해온 혼성집적회로(HIC)가 지난 수년간 시장이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함에 따라 94년부터 상호를 유양화학에서 유양정보통신으로 바꾸고 정보통신사업에 참여, 최근에는 각광받고 있는 이동통신단말기를 비롯한 PC주변기기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유양은 정보통신관련 신규사업을 위해 지난해 100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한데 이어 신제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 올 하반기

에는 추가로 100여억원을 투자, 양산설비를 갖추으로써 올해에 이 부문에서만 130억원의 매출액을 올릴 계획이다.

이 회사는 올 상반기중에 광역무선호출기를 비롯해 인터넷트를 이용해 시내전화요금으로 국제전화를 할 수 있는 PC토크 시스템과 현재 우선으로 사용중인 PC프린터시스템을 무선으로 조작할 수 있는 무선 키보드시스템을 상용화할 계획이다.

## 영국에 반도체 공장

### 설립

### LG반도체

LG반도체는 15억달러를 단독 투자, 영국 중남부 지역에 256메가 D램 제조공장을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자학 LG반도체 회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빠르면 올 상반기중 착공해 내년말부터 가동에 들어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LG 영국 공장은 곧 건설에 들어갈 말레이시아 페낭공장에 이어 두번째 해외생산기지가 된다.

구회장은 「영국공장에서선 원칙적으로 12인치 웨이퍼를 사용할 방침이나 표준규격 제정이 늦어질 경우 8인치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LG는 「유럽공장 건설 지역으



로 영국과 독일을 검토했으나 임금이 싸고 우수한 설계인력이 많은 영국을 선택했다"며 「영국 정부와 원칙적인 합의를 끝내고 중남부 지역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입지를 물색중」이라고 설명했다.

LG는 이와함께 말레이시아 페낭공장도 당초 16메가 D램을 생산하려던 계획을 바꿔 64메가 D램 전용공장으로 건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 첨단 특수영상 통한 반도체 상설전시관 개관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문정환)가 국내 처음으로 첨단 특수영상 기법을 통해 반투의 세계를 쉽고 흥미롭게 체험할 수 있는 반도체 상설전시관 「LG Semicon World」를 4월 30일 개관했다.

서울 대치동 사옥 3층에 위치한 이 전시관은 100여평 규모로

반도체의 재료·설계·제조 공정에서부터 다양한 반도체 제품 및 활용분야를 특수영상과 각종 모형을 통해 상세히 보여주며 특히, 최첨단 멀티시스템을 이용한 가상현실(VR)·매직비전·홀로그램·델비전 등의 특수영상을 통해 일반인들이 반도체의 세계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이와 함께 관람자들은 반도체 백과사전 CD롬을 통해 반도체의 역사·제조공정·제품의 종류 및 활용분야 등 반도체 관련 모든 지식을 컴퓨터에서 검색할 수 있으며 하이칩(Hi CHIP)투어 코너에서는 관람객이 우주선 시뮬레이터에 탑승, 직접 반도체를 이용한 3차원 가상공간을 체험할 수 있다.

## “열린 환경경영” 본격 추진

### LG반도체

LG반도체(대표 문정환)는 환경경영의 선진화를 위해 국내에선 처음으로 환경년간보고서(Environmental Report : Annual)를 발행하여 환경경영 성과 및 계획을 공개하고 “그린기술, 그린경영, 그린사회”를 위한 환경경영을 본격 강화한다.

이는 환경에 관한 한 숨길 것이 아니라 대내외에 공개하여 투명한 경영을 하여야 한다는 LG반도체의 환경방침에 따른 것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올 한해 환경방지시설 및 공정 개선 분야에 400억원을 투자하여 황산, 염산 등 대기오염물질의 오염농도를 법적 규제 기준에 비해 20% 이하로 개선토록 하였으며 수질오염의 농도는 법적 규제 기준에 비해 50% 이하로 개선 하는 등 생산공장을 초청정 “Clean & Green”사업장으로 구현토록 하였다.

또한 제품의 설계에서 폐기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환경에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사후 관리차원이 아닌 사전에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환경친화제품을 개발토록 하였다.

아울러 LG반도체는 종전의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사후처리 기술 개발만으로는 환경개선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원료의 효율적 활용, 생산공정의 개선, 저오염 제품 생산을 위한 “그린기술”개발을 위해 '97년 부터 그린기술연구소를 설립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금번 4월 25일 “환경 공개 세미나” 개최를 시발로 환경관련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 그린경영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카드 케이블용 초소형 코넥터 첫 개발

### LG전선

LG전선(대표 권문구)은 국내 처음으로 CD롬 드라이브 및 노트

북PC에 사용되는 카드케이블용 고밀도·협피치 초소형 커넥터를 개발,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판에 들어간다.

LG전선이 이번에 선보인 카드케이블 및 플랫케이블용 1.0mm피치 초소형 커넥터는 그동안 전량 수입에 의존해온 제품으로 표면실장부품(SMD) 방식을 채용함으로써 자동실장이 가능하고 특히, 포장방식을 엠보스테이프 방식으로 개선해 시간당 실장효율을 높일 수 있게 했다.

또한 이 제품은 카드케이블과 결합시 힘이 들지 않는데다 커넥터 좌·우측에 납땀판을 부착, 기판 납땀성을 향상시켜 작업성과 접촉특성을 최대화했다.

LG전선은 이번 1.0mm피치급 초소형 커넥터의 개발로 세트업체의 부품 국산화율을 높이는 데 기여함은 물론 연간 400만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디지털 키폰시스템 개발

### LG정보통신

LG정보통신(대표 정장호)는 48회선 규모의 디지털 키폰시스템(모델명 스타렉스-VSP2)을 개발, 이달 중순부터 본격 판매에 나섰다

이번에 개발한 키폰시스템은 캐

비닛형 구조로 최대 48회선내에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국선 및 내선 등의 회선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회선구성의 효율이 높고 자동응답시스템(ARS)기능, 음성사서함(VMS)기능 등 부가장비 접속이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또한 이 제품은 하자 발생시 애프터서비스센터에서 국선을 통해 시스템의 하자내용을 확인, 수리할 수 있는 원격유지보수 기능을 내장했고 호텔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 아웃등록, 기상벨기능, 한자리숫자 다이얼링, 통화요금 계산 등의 기능을 탑재했다.

이밖에 상대방이 통화중일 경우 다른 가입자에게 자동 착신전환되는 그룹미팅, 통화중 예약통화기능, 내선가입자 5명까지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회의통화기능 등 다양한 서비스 기능을 지니고 있다.

## TV로 인터넷 검색

### 서비스 개시

####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는 일반 TV에서도 인터넷을 검색할 수 있는 「CDI(대화형 콤팩트 디스크)를 이용한 인터넷 접속세트」를 개발,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LG전자는 최근 컴퓨터 활용방

법을 몰라도 누구든지 TV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도록 CDI 인터넷의 서비스사업을 추진키로 확정하고 영국과 일본 등지에서 인터넷 서비스사업을 벌이고 있는 네덜란드 필립스와 제휴, 웹브라우저 및 관련기술을 제공받기로 했다.

또한 LG전자는 자체적으로 인터넷 관련인력을 보강, 서버구축 및 홈페이지 제작에 착수하는 한편 C&C·세진전자 등과 공동으로 모뎀과 키보드를 개발, 오는 7월부터 이 접속세트를 15만원선에 판매할 예정이다.

LG전자가 구축하려고 하는 CDI 인터넷 시스템은 로그온 디스크와 모뎀·전화선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가정에서 CDI플레이어에 로그온 디스크를 집어넣은 후 버튼을 한번만 누르면 모뎀을 통해 인터넷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해 준다.

특히 이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집안에 앉아서 TV로 손쉽게 기업들의 비즈니스·기업홍보 및 광고는 물론 세계 각국의 유명 박물관·관광지·대학도서관 등에 소개하는 사이트에 접속,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인터넷 사용자층의 저변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에 복합전자단지

### 구축

##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가 브라질에 대규모 복합전자단지를 구축한다.

LG전자는 오는 2005년까지 10억달러를 투입, 브라질 상파울루주 타우바테시 인근 52만평 부지에 컬러모니터를 비롯한 전자관 및 관련부품, 백색가전제품 등을 생산하는 대규모 복합전자단지를 단계적으로 건설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 LG전자는 27일(한국시간)브라질 현지에서 마리오 코바스 상파울루 주지사, 호세 베르나도 오르티즈 타우바테 시장, 김삼훈 주브라질 대사, LG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담당 구승평 부사장 등 200여명의 양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복합전자단지 기공식을 갖고 1차로 모니터 생산공장 건설에 착수했다.

타우바테 복합전자단지는 현지에서 직접 연구개발·인력확보·상품개발·부품조달·생산·판매 및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독립적으로 모든 활동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현지 완결형 공장」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모니터 공장은 첫 단계로 내년초부터 14, 15, 17인치 컬러모니터를 연간 40만대 규모로 생산하고 점차적으로 늘려오는 2000년에는 연산 300만대 규모로 확대, 브라질 시장뿐 아니라 인근 중남

미 지역에 공급할 계획이다.

모니터 생산법인(LGESP)은 단독투자 형태로 초기 투자규모가 8,600만달러, 자본금 3,400만 달러이다.

LG전자는 이번 모니터 공장이 가동되면 2000년에 브라질 내수시장 점유율 44%로 1위, 2003년에는 남미시장공동체(메르쿠스) 전체 시장에서 35%를 차지해 1위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펜티엄급 멀티PC 시판

###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는 통신기능을 크게 강화하고 사용자환경을 개선한 펜티엄급 멀티미디어 PC인 「심포니 멀티넷」을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 제품은 지난해부터 인터넷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에 발맞춰 28.8kbps의 고성능 DSVD(Digital Simultaneous Voice & Data)팩스모뎀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인터넷 웹 브라우저인 「네트스케이프 2.0」을 기본으로 탑재, 통신기능을 보강했다.

또 멀티미디어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에 부응하기 위해 그림·동화상 등 대용량의 정보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16MB 기본메모리, 2.5GB HDD, 256KB 캐시메모리 등 현존하는 최고의

기억장치들을 채용했으며 CD롬 드라이브도 8배속을 장착한 고성능 제품이다.

이와함께 「소프트 홈」이라는 유저인터페이스(UI) SW를 내장, 초기 화면에 안내자인 「홈돌이」를 등장시켜 사용자들이 이와 대화하듯 PC를 이용해 함으로써 초보자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디지털 VCR 개발

### LG전자

LG전자(대표 구자홍)는 최근 기존 VHS테이프를 사용해 디지털방송을 녹화 또는 재생할 수 있는 「디지털 VCR」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LG전자가 개발한 디지털 VCR는 현재의 아날로그형 VHS테이프에 디지털 동화상 압축신호를 기록해 재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테이프 1개에 12GB에 달하는 디지털 신호를 기록, 최장 150분까지 재생할 수 있다. 또 S-VHS 테이프를 사용하면 30GB의 대용량 디지털신호를 기록해 최장 300분까지 재생할 수 있다.

LG전자는 이번에 개발한 디지털 VCR를 보다 집적화해 콤팩트한 크기의 제품으로 내년 중반께 상품화할 예정인데 가격은 현재의 S-VHS VCR의 가격대에 맞출 방침이다.

이번 디지털 VCR의 개발을 위해 LG전자는 지난 94년 3월부터 2년여의 기간 동안 15년여의 기간 동안 15명의 연구원과 18억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했다. LG전자는 이 기술과 관련해 국내에 40건, 해외에 12건의 특허출원 절차를 밟고 있고 해외 디지털 위성방송업체를 대상으로 한 기술 수출도 모색중이라고 밝혔다.

## 클리닝 필터 국내 첫 개발

### LG하니웰

LG하니웰(대표 권태웅)이 각종 배관내의 이물질들을 100% 제거할 수 있는 클리닝 필터(모델명 CF-1000)를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에 성공, 오는 8월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간다.

LG하니웰이 개발에 성공한 클리닝 필터는 난방배관·수도배관·설비 배관 등 각종 배관 중간에 삽입, 배관내 이물질을 100% 제거할 수 있는 제품으로 그동안 독일·미국 등에서 연간 150만개 가량의 국내 수요분을 전량 수입해 왔다.

이 제품은 이중 그물망을 설치하고 투명창으로 설계해 이물질의 축적도를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고 역수로 워터 제트현상을 일으켜 이물질을 순간적으로 배출시킬 수 있으며 독일제품에 비해 가격은 20% 수준에 불과,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된다.

## 펜티엄 노트북 시판

### 큐닉스컴퓨터

큐닉스컴퓨터(대표 이범천)가 기본 메모리 8MB에 810MB의 HDD를 장착한 대용량의 펜티엄 노트북 PC 2종을 개발, 시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레포트」란 이름의 이 제품은 최근 컴퓨터기종이 고속·대용량화되는 것에 발맞춰 데스크톱에 비해 손색이 없도록 용량을 극대화했다는 점과 4배속 CD롬 드라이브, 16비트 사운드카드를 기본으로 장착하고 무선통신기능(IrDA)을 부여하는 등 기능을 다양화했다.

또 10.4인치 TFT LCD를 채용했으며 최근 고성능제품에 채용되고 있는 트랙패드를 장착, 손가락 움직임만으로 마우스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75MHz와 100MHz 등 2종으로 큐닉스 컴퓨터는 은행·보험 등 금융권 및 각 기업체 영업사원과 대학생·언론사직원 등을 집중 공략해 월 1천대 이상을 판매할 계획이다.

## 8배속 CD롬 드라이브

### 개발

### 태일정밀

태일정밀(대표 정강환)이 확장 IDE방식의 8배속 CD롬 드라이브를 개발했다.

태일정밀은 초당 1,200KB의 전송 속도에 190ms의 정보 접근시간을 지닌 확장 IDE방식의 8배속 CD롬 드라이브(모델명 CDD6801)를 개발, 이달 하순경부터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태일정밀이 이번에 개발한 8배속 CD롬 드라이브는 256KB의 버퍼메모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오디오재생버튼 및 디지털 오디오 단자가 부착되어 있다.

이 제품은 CD-DA, CD롬/XA, CDI, 비디오CD 등 다양한 데이터 포맷을 지원한다.

태일정밀은 8배속 CD롬 드라이브 개발을 계기로 10억원을 투입, 현재 월 10만원대 정도의 CD롬드라이브 생산규모를 20만대로 확대하고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 판매에 나설 계획이다.

## 초소형 PLC 공급

### 한국오므론

한국오므론은 최근 입·출력점을 최저 60점에서 800점까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는 초소형 PLC(모델명 SYSMAC-C200H 시리즈)의 내수시장 공급에 나섰다.

한국오므론이 올 들어 내수시장 주력제품으로 이번에 선보인 논리

연산제어장치(PLC)는 기존 제품과는 달리 시스템 네트 링크 유닛, 오르본사의 전용 링크인 SYSMA-C 링크 유닛, 상위 링크 유닛, 통신용 고기능 유닛 등 배선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성배선 유닛을 내장하고 있다.

특히 온도조절기·컴퍼지서너·고속카운터나 위치제어 등 컴포넌트 상품기능을 유닛으로 풍부하게 갖추고 있다.

한국오르본은 이 제품의 내수공급과 병행, 시각인식장비와 같은 자동화설비 공급을 확대하는 등 종합 자동화시스템 사업을 본격화한다는 방침 아래 구미공단에 PLC전용 조립라인을 구축, 양산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 LED 신제품 3종 개발

### 한국전자

한국전자(대표 광정소)가 칩 LED 등 LED 관련제품 3종을 개발, 본격 시판을 나섰다.

한국전자가 이번에 개발한 제품은 유·무선 전화기 등의 백라이트(Back Light)용 칩LED, 회로의 신호전달 장치에 채용되는 포토커플러, 옥외 전광판용 픽셀(Pixel) 등 3종이다.

지난해부터 총 15억원을 들여 개발, 최근 시험생산을 마무리한 칩 LED는 원칩 타입인데 전화기·휴대폰 등 통신기기의 광다이얼

용으로 월 700만개의 판매를 목표로 영업망 확충에 들어갔으며 앞으로 와이어본더와 태핑머신 등 생산설비를 추가해 투칩 타입도 생산할 계획이다.

이 회사는 또 총 25억원의 투자로 지난달 개발한 포토커플러는 컴퓨터 터미널·복사기·자동포장설비·팬히터·의학장비용 등으로 올해 월 600만개를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전자는 초기에 수요가 많은 4핀 덩(DIP) 타입 제품의 생산에 주력하고 추후 8핀 및 16핀 덩 제품도 생산할 방침이다.

## 중대형 상용서버 공급

### 한국후지쯔

한국후지쯔(대표 이경호)가 세계 처음으로 800만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해 설계한 상보성산화물 반도체(CMOS)를 범용 프로세서로 탑재한 중대형 상용서버를 국내에 본격 공급한다.

10일 한국후지쯔는 0.35 $\mu$ m의 고성능 CMOS 프로세서를 64개까지 병렬 저속해 최대 16GB 주 기억 메모리 용량을 지닌 중대형 상용서버(모델명 GS8600)를 국내 발표와 동시에 판매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후지쯔의 고성능 상용서버는 고밀도실장기술인 멀티칩모듈방식을 이용해 단일 보드

에 8개의 CPU를 탑재할 수 있으며 클러스터링기법을 이용해 CPU를 64개까지 확장할 수 있다.

이 제품은 후지쯔가 독자 개발한 「MSP-EX」와 「MSP-XSP」 운영체제를 탑재하고 있다.

특히 이 제품은 초당 1.6GB의 정보처리 속도를 지니고 있고 각 클러스터와 스토리지 시스템간에 초당 400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 플래시 메모리 카드

### 개발

###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는 국내 업계 최초로 차세대 기억장치인 플래시 메모리카드를 개발, 다음달부터 본격 시판에 들어간다고 12일 발표했다.

이 제품은 5V 단일 전원으로 작동하며 정보처리 속도가 150나노초(10억분의 1초)에 이르는 것으로 「PCMCIA(PC카드 국제표준화위원회) 2.1」버전의 메모리 카드협회 규격에 대응한다.

또한 이 회사는 카드에 기록된 모든 정보를 기록·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 어트리뷰트 메모리용 EEPROM 2KB를 내장했고 카드 외부에 쓰기금지용 스위치를 장착해 사용자 부주의로 인한 데이터 유실을 막을 수 있는데다 내장된 플래시메모리 전체를 데이터 기억용

도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라고 밝혔다.

## 복사기 사업 강화

###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가 복사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전자는 최근 100만원대 보급형 복사기를 출시하면서 제품군을 다양화하는 한편 그동안 대리점 위주의 영업조직을 대리점과 직판조직으로 이원화하고 유통망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등 복사기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현대전자는 기존 200만~300만대 중속 복사기와 1천만원 이상의 고속 복사기에 이어 최근 100만원대 보급형 복사기를 출시했으며 다음달 중으로 보급형 복사기 1종을 추가로 발표, 제품다양화를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간다는 것이다.

또 앞으로 2년내에 팩스 프린터 복사기 등 모든 출력기능을 통합한 디지털복사기가 시장을 좌우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0월부터 개발한 착수한 디지털복사기를 내년 하반기에 출시, 초기시장을 선점해 나갈 계획이다.

### 155Mbps급 광송수신

### 모듈 첫 개발

## 현대전자산업

현대전자(대표 정몽헌)가 국내 업계 최초로 광통신 시스템의 핵심보품인 155Mbps급 광송수신 모듈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현대가 2년여동안 4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이 제품은 전기적 신호를 광신호로 변화, 광섬유로부터 전달된 광신호를 전기신호로 변화시켜주는 수신모듈로 구성되어 있으며 1초에 1억 5,000만개의 신호를 처리할 수 있다.

현대전자는 특히 이 제품의 핵심인 모듈광학 부분에 자체 개발한 1.3 $\mu$ m(100만분위 1m)파장의 레이저 다이오드 및 핀포토 다이오드 광소자를 사용했고 광출력 마이너스 33dB의 모듈 테스트 조건하에서 송수신 에러율이 1천억분의 1로 선진 외국업체 제품에 비해 성능면에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 제품은 20핀 DIP 조립형태로 단일모드 광섬유와 FC-PC 또는 SC 등의 다양한 커넥터로 구성돼 있고 대량생산이 가능한 캔(CAN)타입 조립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 이 제품은 송신모듈은 자동강출력 조정기능과 전기 및 광신호 이상에 대한 경고기능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신모듈은 클럭과 정보의 재생 및 경고기능 등을 기본회로에 내장했다.

## 펜티엄 PC 4종 시판

### 한국HP

한국HP가 펜티엄PC 4종을 5월에 선보인다.

한국HP가 선보이는 제품은 학생 및 가정시장을 겨냥한 133/166MHz급의 「네티즌 프로II」 2종과 사무실 사용자들을 겨냥해 100/133MHz급의 「네트지 오피스II」 2종 등 총 4개 모델이다.

홈 PC인 「네티즌 프로II」는 1.6GB HDD, 16MB EDO 램, 64비트 PCI버스, 8배속 CD롬 드라이브, 28.8Kbps 팩스모뎀 등의 사양을 갖고 있으며 학생 및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오락 기능을 강화했다.

사무실용인 「네트즌 오피스II」는 1.6GB HDD, 8MB EDO 램, 6배속 CD롬 드라이브 등을 기본 사양으로 갖고 있으며 사무환경을 고려해 불필요한 CD 타이틀을 배제하고 OCR스캐너와 백업 드라이브를 선택사양으로 제공한다.

또 이들 제품은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에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넷스케이프 1.2를 비롯해 MPEG 소프트웨어, 폰블라스터등의 소프트웨어를 기본으로 제공한다.